

Q7

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사례와 피해규모가 궁금합니다.

**A**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연평균 약 56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특히 최근 들어 대형산불의 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2017년 강릉·삼척산불, 2018년 고성산불, 2019년 고성·강릉·인제산불, 2020년 울주, 안동, 고성산불 2021년 예천, 안동산불, 2022년 울진·삼척, 강릉산불 등 해마다 대형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2000년 강릉, 동해, 삼척에서 발생한 동해안 산불은 역대 가장 큰 피해면적을 기록한 산불이었습니다. 산불로 인한 피해만 23,794ha 규모로 축구장 3만5,000개의 면적과 주택 등 800여 채의 건물이 불타고, 경제적으로는 약 360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. 2005년 양양산불로 인해 천년고찰 낙산사가 불탔습니다. 이는 산불이 산림과 주택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문화재까지 한순간에 불태울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. 2013년도에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포항과 울주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.

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이어 32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면서 35,357ha 규모의 산림 피해를 입었습니다. 특히 2022년에는 총 11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. 그 중 3월 4일에 발생한 울진·삼척산불은 16,302ha의 산림을 소실시켰으며 진화소요시간은 213시간 43분으로 역대 우리나라 최장기간 산불로 기록되었습니다. 6,482명의 주민들이 대피하였으며, 시설물 약 643개소가 소실되는 등 8,811억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또한 2023년에는 대형산불 8건이 발생하면서 3,769ha의 산림 피해를 입었습니다.

역대 대형산불 사례 및 피해규모

연도	명칭	기간	피해면적 (ha)	피해액 (억원)	이재민/명 (세대)	최대풍속 (m/s)
2022	울진·삼척	3.4.-3.13.	16,302	9,086	335 (219)	27
2021	안동·예천	2.21.-2.23.	419	177	0	13
2020	고성	5.1.-5.2.	123	3	0	19.1
2020	안동	4.24.-4.27.	1,944	106	0	18.8
2020	울주	3.19.-3.20.	519	28	0	19.1
2019	강원 (고성·속초, 강릉· 동해, 인제)	4.4.-4.6.	2,872	1,291	1,289 (566)	35.6
2018	고성	3.28.	357	22	7 (5)	10
2018	삼척	2.11.-2.13.	161	7	0	10.8
2017	강릉·삼척	5.6.-5.9.	1,017	133	85 (39)	23
2005	양양 (낙산사 피해)	4.4.-4.6.	973	276	412 (191)	32
2002	청양·예산	4.14.-4.15.	3,095	60	78 (32)	15.1
2000	동해안 (삼척 등 5지역)	4.7.-4.15.	23,794	360	850 (299)	23.7

※ 출처 : 산림청 홈페이지